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018, pp. 1-24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발전방안

- 미 육군의 아카이브즈 사례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Regarding Online Contents Service of Army Records and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US Army's Archives Case

김 용 찬(Yong-Chan Kim)*

목 차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선행연구
2. 우리나라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2.1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2.2 육군 군사연구소
2.3 육군 박물관
2.4 우리나라 육군 아카이브즈 사례 분석
3. 미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3.1 미 육군 기록관리 및 해제국(RMDA)
3.2 미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USAHEC)
3.3 미 육군 역사센터(CMH)
3.4 미 육군 아카이브즈 사례 분석
4. 결론 및 제언

〈초 록〉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경색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전환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북한의 전통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대학생과 청소년층의 낮은 안보의식은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의 핵심기관인 육군이 소장한 각종 기록(Army Records)을 온라인 콘텐츠로 재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방국이자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 아카이브즈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안보의식, 군 기록, 군 아카이브즈,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ABSTRACT〉

Internatio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recently undergoing a sudden change.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been defined by severe tensions for many years; however, sinc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began to thaw, and expectations of unification have been rising. Nevertheless, some still warn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utilizing a "carrot and stick" tactic. With this, recent research revealed that there is a low sense of national security among college students and teenagers in Korea, which magnifi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trong s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having a national viewpoint. A way to achieve this is for the army, a core institution of national security, to release army records as online contents. This paper takes an in-depth look into the US Army's online contents service, a leading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seeks to provide development plans for the Republic of Korea Army's online contents service.

Keywords: Sense of national security, army records, army archives, online contents service

* 육군3사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chen18365@gmail.com)
■ 접수일: 2018년 7월 5일 ■ 최초심사일: 2018년 7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6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1-24,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3.001〉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평창올림픽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그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로 고조되어 온 국제 사회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시작으로 예술단 교환 공연, 3차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양자 간 노력이 가시화된 성과로 창출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 직전까지 경색 국면에 놓여 있던 남북 관계를 상기해 볼 때,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 양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상기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비롯하여 1972년 남북 공동성명발표 시 남침용 땅굴, 1983년 3자 회담 제안 직후의 아웅산 테러,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 연평해전 등 과거의 역사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성인의 83.7%가 참전의사를 보인 반면, 대학생은 63.2%, 청소년은 56.9%만이 참전의사를 보였다. 또한, 현재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하여 성인의 63.2%가 높다고 응답한 데 비해, 대학생은 48.2%, 청소년은 46.9%만이 높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대학생과 청소년의 안보의식 수준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할 주역인 대학생과 청소년층의 낮은 안보의식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남북 분단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생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인 군(軍)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립전쟁을 비롯하여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평화유지군 활동 등 국가안보의 수호는 물론 국제평화의 유지에도 기여해 왔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료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록들을 생산하거나 수집해 왔다. 이러한 군 기록(Army Records)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한다면, 대학생과 청소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군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은 국가 자산의 일부라 볼 수 있으며,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의 이용에 있음을 상기할 때, 군 기록의 활용은 시대적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하겠다.

국민을 대상으로 군 기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중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육군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정리하여 후대에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밀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록의 내용과 범위가 개인의 참전기록이나 복무기록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기록들을 정제, 가공하여 방대한 온라인 콘텐츠로 재창조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군이 제공하는 풍부한 콘텐츠를 일반 검색이나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군 기록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안보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육군의 아카이브즈라 할 수 있는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 역시 각각 역사기록관리단이라는 자체 아카이브즈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미국과 비교해 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 군의 온라인 콘텐츠는 내용 면에서 병상일지나 복무기록, 인사명령과 같이 개인의 과거 복무기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빙적 성격의 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외부에 개방된 인터넷 환경이 아닌 군의 내부 전용 통신망, 즉 인트라넷 환경으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의 직접적인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이다. 이는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과 폐쇄성을 고려하더라도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콘텐츠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며,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은 군에서 생산하는 기록에 대해 수집, 이관, 보존과 같은 일차적인 기록관리 기능에 충실한 반면, 미군의 경우 기록의 이차적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육군과 미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및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 육군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어느 국가보다도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육군과 미 육군의 다양한 아카이브즈 조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한다.

첫째, 우리 육군 아카이브즈의 기능과 임무, 조직, 보유 기록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우리 육군 아카이브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미 육군 아카이브즈의 온라인 콘텐츠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육군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1.3 선행연구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문화, 예술, 종교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면, 심성보(2007)는 콘텐츠를 '텍스트, 소리(음악), 영상(고정된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결합물이나 연속물로서 인간을 위해 대량 유포의 목적으로 조직화된 메시지나,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의 통칭'으로 정의하였으며, 기록정보콘텐츠를 '세분화된 고객의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객의 욕구에 기반하여 추가 제작하여, 기록정보와 함께 결합물이나 연속물의 형태로 조직화하여 배포되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로 정의하였다.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록관 또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황 조사를 토대로 파생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시기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원과 김익한(2006)은 기록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점차 다양해지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 안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지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윤주(2007)는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 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관의 웹사이트가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알권리,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 정보서비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구조와 디자인, 콘텐츠, 인터페이스, 커뮤니케이션, 검색의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웹사이트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전수진(2008)은 미국, 호주, 영국의 보존기록관리기관, 즉 국립기록원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조사하여 그 유형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는 목적에 따라서 교육, 홍보, 전시, 검색지원 콘텐츠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콘텐츠에 기록이 활용된 구조에 따라서 기록 중심형 콘텐츠와 주제 중심형 콘텐츠로 구분되고, 콘텐츠와 이용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일방향 콘텐츠와 양방향 콘텐츠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정하영과 김양우(2009)는 국가기록원과 외교통상부 등 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 각 기관이 시청각 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체 변환의 번거로움이나 인식 부족으로 온라인 콘텐츠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기록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김지현(2012)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에서 나라기록포털의 유용성과 이용의 용이성에 대해 이용자들의 평가가 높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검색이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과 신속한 업무처리 및 비공개 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명훈과 한지혜(2013)는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구축방안에 있어서 구술기록의 맥락을 바탕으로 제공할 것과 기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 구술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구축 방안, 구술기록의 생산, 관리 및 보존프로세스의 정교화, 다자간 공조 등을 주장하였다.

김솔(2013)은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연구에서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인지도와 교육적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초등교육용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초등, 중등, 일반 및 대통령기록 전문연구자들을 배려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유승과 설문원(2013)은 국회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포괄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부재,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부재, 콘텐츠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으로서 국회 기록 포털의 구성, 포괄적 검색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부가 콘텐츠 개발, 웹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조직적 확장 서비스 제공 등 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최상희(2016)는 가톨릭 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가톨릭 기록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못하며, 그 원인이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측면에 있음을 지적하고, 콘텐츠를 전자화하여 서비스를 활성 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는 극히 드물며,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한 육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에 관련된 연구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2. 우리나라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2.1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2.1.1 기관 소개

우리 육군의 대표적 아카이브즈라 할 수 있는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이하 기록정보관리단)[1]은 1951년 부산에서 육군 중앙문서보존소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으며, 국내 최초의 기록물 보존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 1968년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을 거쳐 2004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68년에는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필름 사업을 도입하면서 기록물 보존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1990년 말에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록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했다. 문서의 보존 형태 역시 1950년대는 문서 원본 위주였던 것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는 마이크로필름 위주로, 1990년대 이후에는 CD, 전자문서, 백업 테이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1)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웹사이트 (2018). 검색일자: 2018. 5. 16. 사이트 주소는 보안상 생략

기록정보관리단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육군 및 대외기관의 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 육군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육군 기록물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육군본부, 2017).

기록정보관리단은 기록관리계획과, 기록물수집평가과, 기록보존활용과, 기록매체생산과, 제2보존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관리계획과는 총괄부서로서 연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기록물관리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록관리시스템 관리, 국가기록원 업무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물수집평가과는 기록물 수집계획 작성 및 이관업무 조정·통제, 기록관리기준표 제정 및 관리, 유형별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 등을 수행한다. 기록보존활용과는 보존서고 관리, 기록물 보존처리(소독 등), 보존기록물 정수 검사, 보존기록정보 활용지원(열람·사본·대여 등), 기록물 공개재분류 및 공개 처리 등을 수행하며, 기록매체생산과는 기록보존매체의 생산, 각종 종이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매체 수록, 사진·필름의 디지털화 및 이미지 복원, 기록물 복원 및 복제 기술 제공 등을 담당한다.

2.1.2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보유 기록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기록정보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현황은 〈표 1〉과 같다. 총 2억 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보유 기록 가운데 전자기록이 약 9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자기록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록의 주제별로는 역사/정책관련 기록, 총장결재 기록, 인사기록, 의무기록, 비밀기록, 수사/법무 기록, 해체 및 해외파병 부대 관련 기록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2)]

보유기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활용했던 전자문서시스템으로부터 현재 활용중인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육군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전자기록을 비롯하여 수기로 생산된 종이기록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있는 기록, 육군의 각종 행사나 회의 등과 관련된 녹음/동영상/사진과 같은 시청각 기록, 주요 직위자가 기증한 물품이나 부대 현판/관인/부대기 등의 행정박물, 육군이 발행한 각종 간행물, 이외의 특수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정보관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육군규정집과 육군역사 화보집, 참모총장 결재기록물 목록집, 행정박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 마이크로필름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병상일지나 복무기록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서 개별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당사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표 1〉 기록정보관리단 보유 기록 현황

구 분	계	전자기록	종이	M/F	시청각	행정박물	간행물	특수기록
비율(%)	100	96.90%	3.02%	0.02%	0.04%	0.00%	0.01%	0.01%

2) 세부 건수 및 내용은 보안상 생략

〈표 2〉 기록정보관리단의 온라인 콘텐츠 현황

콘텐츠 제목	콘텐츠 주요 내용
(구)육군규정	• 1950년부터 2002년까지의 육군규정집
육군 역사사진집	• 1945년부터 2012년까지의 육군역사 화보집
참모총장 결재기록물 목록집	• 1967년부터 2014년까지의 참모총장 결재기록물 목록집
행정박물	• 참모총장 등 주요직위자 기증품(명패, 서신, 지휘봉 등) • 해체부대, 해외파병부대 관련 박물(현판, 관인, 감사패 등)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록정보관리단에서 현재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그 주제 면에서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내용의 최신성과 내실성 면에서도 보완해야 할 소요가 많다. 대부분의 온라인 콘텐츠가 원본 기록의 이미지 파일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록에 대한 제목과 생산일자 정도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록이 생산된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고급 검색 기능이나 연관 정보에 대한 확장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2.2 육군 군사연구소

2.2.1 기관 소개

육군 군사연구소(이하 군사연구소)[3]는 1951년 전사감실로 창설되어 1971년 군사연구실을 거쳐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군사연구소는 육군을 대표하는 연구・편찬 기관으로서 육군사 및 병과 발전사 등 육군의 역사기록 편찬과 함께 전쟁사 연구, 6.25 전쟁 참전자에 대한 명예 선양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사연구소의 조직 편성은 역사편찬과, 한국전쟁연구과, 세계전쟁연구과의 3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편찬과는 육군 역사편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대사 관리, 명예 선양 활동 등을 담당하며, 한국전쟁연구과와 세계전쟁연구과는 해당 전쟁사에 대한 연구 및 편찬 활동과 국내・외 자료의 수집,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한국전쟁사 자문, 교육자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2.2 육군 군사연구소 보유 기록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군사연구소는 창설 이후 60여 년간 620여 권의 자료집과 연구서, 번역서 등을 편찬해 왔으며, 그 주제는 육군 역사, 6.25 전쟁, 대침투작전, 해외파병, 세계전쟁, 고대 및 근대, 기타 의 총 7개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주요 보유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군사」는 군사연구소에서 195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육군의 역사집으로 육군의 주요 지휘 및 참모활동과 정책 사업에 대한 입안 추진경과를 작성하여 역사자료로 존안하기 위한 서적이며 육군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서이다. 「육군참모총장기」는 참모총장 재임기간 중 주요 추진정책과 지휘기록을 수록하여 군 역사자료

3) 육군 군사연구소 웹사이트 (2018). 검색일자: 2018. 5. 16. 사이트 주소는 보안상 생략

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육군의 역할」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던 육군의 역할을 정리하여 재조명한 발간물로서 육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육군 상 정립을 목표로 발간한 도서이다. 「6.25 전쟁 참전자 증언록」은 6.25 전쟁 참전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증언 자료들을 집대성한 1차 사료이다. 「한국의 전쟁영웅들」은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 대침투작전 및 훈련 등 국가위기 시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 200여 명의 전쟁영웅에 대한 전투사례를 발굴하여 기록하였다. 「전사자 명부」는 6.25 전쟁을 비롯하여 전투현장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명예를 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속부대별로 전사자 명단을 수록한 자료이다.

군사연구소가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표 3〉과 같이 육군사, 한국전쟁, 세계전쟁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육군사 관련 콘텐츠의 경우 육군의 발전 양상과 주요 활동, 추진 사업에 대한 존안자료로서 1차적 사료의 성격이 강하며, 한국전쟁 및 세계전쟁 관련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물 또는 전문서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온라인 콘텐츠는 자체 발간한 간행물 중 일부를 PDF 파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록정보관리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검색기능이나 배경정보 등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2.3 육군 박물관

2.3.1 기관 소개

육군 박물관[4]은 1956년 육군사관학교 기념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66년 육군사관학교 군사박물관을 거쳐 1985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육군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군사유물과 유적을 조사, 정리,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상무정신의 전통이 담겨있는 국방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높이고 연구 및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우

〈표 3〉 군사연구소의 온라인 콘텐츠 현황

육군사 관련	한국전쟁 관련	세계전쟁 관련
육군사	고대/근대 전쟁사	20세기의 극적 결전
참모총장기	6.25 전쟁사	발칸 작전
참모부(기능) 발전사	대침투작전사	세계유격전사
병과 발전사	한국 군사사	오마하 상륙작전
해외파병 화보집	위대한 헌신과 희생	유타 상륙작전
육군역사 화보집	전쟁의 원칙과 활용	아프가니스탄 분쟁사
육군 60년 발전사	이대용 장군 수기	중국 춘추전국 군사사
대한민국 발전과 육군의 역할	6.25 전쟁과 UN군(한글/영문판)	이라크 전쟁
연천지역 포격도발 구술사 등	북괴의 도발 그리고 평화의 모래성 등	청일 전쟁 등
총 65건	총 47건	총 37건

4) 육군 박물관 웹사이트 (2018). 검색일자: 2018. 5. 17. http://www.kma.ac.kr

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전문박물관으로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무기류, 장비류, 서화류, 복식류, 기치류 등 다양한 군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육군 박물관은 육군사관학교 소속의 단일 부서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관학교 교수가 겸직하는 박물관장을 중심으로 유물관리 담당, 전시/교육 담당, 보존 담당, 기념자료 담당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2.3.2 육군 박물관 보유 기록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육군 박물관은 고대 유물 4,999점, 현대 유물 5,544점, 기타유물(기념자료) 2,798점 등 총 13,341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국가 보물인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순절도, 세총통, 중요 민속자료인 호미각궁, 근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박정희 대통령 의전차량과 한국광복군 군복 등이 있다. 육군 박물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표 4〉와 같다.

육군 박물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군사관련 유물 및 문화재에 대한 이미지 파일과 그에 대한 간단한 기술(유물 명칭, 국적, 재질, 크기, 유물설명 등)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2.4 우리나라 육군 아카이브즈 사례 분석

육군 아카이브즈의 일반 현황과 보유 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현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육군 아카이브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 개인기록이나 전쟁사 관련 전문서적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이라는 공익적,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육군을 대표하는 아카이브즈인 기록정보관리단은 방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범위가 인사명령이나 복무기록과 같이 개인의 필요에 따른 증빙적 성격의 기록들로 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육군 내 각급 부대에서 생산, 수집한 행사 사진이나 행정박물 등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군사연구소의 경우에는 온라인 콘텐츠의 유형이

〈표 4〉 육군 박물관의 온라인 콘텐츠 현황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옥외/야외 전시장
창검류	대한제국 군제	홍의포
궁시류	근대 군사복식	일본 38식 야포
총포, 탄환류	군대 해산, 의병 전쟁	안케패스 전승 기념비
신호, 야전장비류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청헌당
복식류	광복군의 활동	T34 전차
병서, 고문서류	육군 창설	연령군 이훤 신도비
지도, 유묵류 등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8인치 곡사포 등
총 303건	총 114건	총 36건

주로 전문적인 연구 성과물 위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문서적들은 대부분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콘텐츠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내용 전개 방식 등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군사 연구나 군내 교육을 위한 콘텐츠에 가깝다. 육군 박물관 역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나 범위가 소장하고 있는 박물들의 이미지 파일과 간략한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기록정보관리단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최신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오마하 상륙작전은 1956년에 편찬된 서적이며, 유타 상륙작전은 1957년, 미 육군사는 1974년, 20세기의 극적 결전은 1979년 자료로서 모두 최신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 중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용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떨어뜨리고 흥미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부재이다. 현재 기록정보관리단과 군사연구소, 육군 박물관 모두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을 선별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기획하고 생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육군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록정보관리단은 조직의 고유 기능 중 하나로 마케팅 및 콘텐츠 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콘텐츠 관리 담당인력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넷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폐쇄적인 접근 환경이다. 국내 대다수 공공기관 또는 아카이브즈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비해, 육군 아카이브즈는 육군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군 내부전용 통신망인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육군에 소속된 이용자들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감한 보안 문제와 관련이 없는 기록이라면 얼마든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안보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육군 아카이브즈의 역할 확대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폐쇄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미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3.1 미 육군 기록관리 및 해제국(RMDA)

3.1.1 기관 소개

현재 미 육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아카이브즈는 미 육군 기록관리 및 해제국(Records Management & Declassificaion Agency, 이하 RMDA)[5]로서 기관의 위상과 기능 측면에서 우리 육군의 기록정보관리단과 유사하다고 볼

5) 미 육군 기록관리 및 해제국 (2018). 검색일자: 2018. 5. 17. https://www.rmda.army.mil

수 있다. RMDA는 미 육군에서 생산, 수집한 각종 기록정보를 관리하는 최상위 조직으로서 육군의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공동 서비스 기록 연구 및 기록 해제와 같은 상호 연관된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

RMDA의 조직구조는 일반 기록관리부(The Records Management Division), 육군 기밀해제부(The Army Declassification Activity), 공동 서비스 기록연구센터(Joint Services Records Research Center), 미 육군 정보자유 사무국(The U.S. Army Freedom of Information (FOIA) Office), 미 육군 개인정보 보호 사무국(The U.S. Army Privacy Office) 등 크게 5개 분야의 전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RMDA가 수행하는 특별 프로젝트에는 나치 및 일본의 전쟁범죄 기록, JFK 암살기록, 대통령 도서관, 베트남 전쟁 중 화학탄 사용기록, 한국전쟁에서의 포로 및 미아 기록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록에 대한 기밀 해제 검토 등이 있다. 또한 RMDA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 서비스 기록연구센터(Joint Services Records Research Center)는 재향군인 및 참전용사들의 장애 보상 청구 지원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관련된 기록정보와 역사기록 연구를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명예 선양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MDA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므로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다.

3.1.2 RMDA 보유 기록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RMDA는 육군 기록정보관리시스템(Army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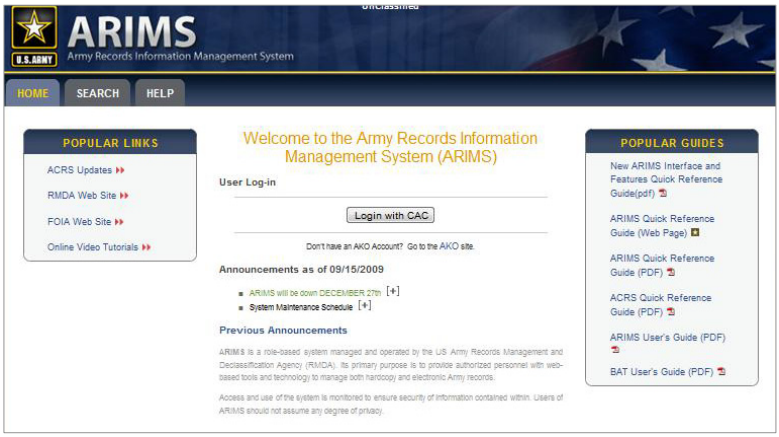
<그림 1> 미 육군 기록관리 및 해제국(RMDA) 웹사이트

이하 ARIMS)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ARIMS는 육군이 보유한 수기기록 및 전자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즉, 웹 기반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의 식별, 장기보존 및 영구기록의 색인 및 저장, 육군 기록보관소(Records Holding Area, RHA)에 보관된 기록의 추적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ARIMS의 AEA (Army Electronic Archive) 모듈은 이메일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록의 보존을 위해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 참조).

ARIMS는 기본적으로 사전 지정된 기록행정관(Records Administrators, RA),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s, RM), RHA 관리자, 기록조정관(Records Coordinators), 부서 실무담당자(Unit Action Officers) 등이 이용할 수 있다. ARIMS는 업무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군 관련 기록을 생산하는 모든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제공되지만, 다양한 이용자들이 기록관리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 미등록자는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기준표에 해당하는 육군 통합기록일정표(Army Consolidated Records Schedule, ACRS) 메뉴 및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기타 메뉴와 같은 일부 기능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RIMS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레코드 관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육군 지식 온라인(Army Knowledge Online, AKO)의 계정과 함께 별도의 공통 액세스 카드(Common Access Card, CAC)가 있어야 한다. 모든 기록 보존 및 처리 지침은 ACRS에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다. 이용자는 키워드, 레코드 시리즈, 레코드 하위 시리즈 또는 유형별로 기록을 검색하거나 특정 레코드 시리즈를 검색 할 수도 있다.

ACRS에는 육군의 모든 기록에 대해 국립기록원(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 승인된 보존 및 처분 정보가 포함된다. 등록된 사용자와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모두 레코드 시리즈, 하위 시리즈 또는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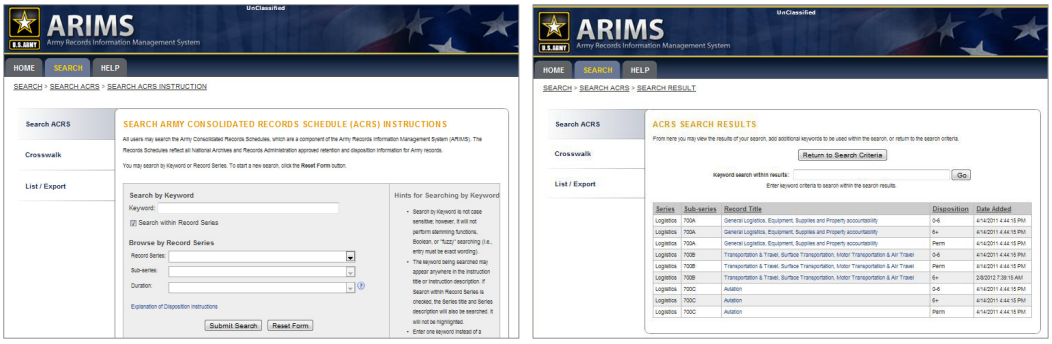
〈그림 2〉 미 육군 기록정보관리시스템(ARIMS) 웹사이트

에 관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지만 특정 레코드에 대해서는 검색 할 수 없다. 이용자는 ACRS의 검색 화면을 통해 키워드, 레코드 계열, 하위 계열 또는 기간으로 검색 할 수 있으며 레코드 시리즈 및 하위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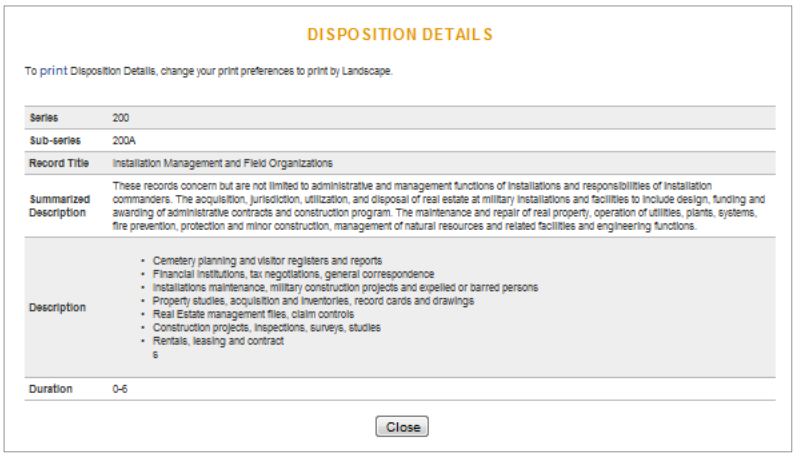
검색을 수행하면 결과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에는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모든 레코드 시리즈 및 하위 시리즈가 표시된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레코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세부 정보가 들어있는 처분 세부 정보(Disposition Details) 창이 열리는데 〈그림 4〉와 같이 ACRS 요약 검색 화면에 제공된 정보보다 더욱 세부적으로 기술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해당 레코드 주제에 대한 요약 설명과 상세 기술, 해당하는 기록의 목록과 보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ARIMS 웹사이트는 이외에도 이용자의 편의와 용이한 접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FAQs, References, 온라인 비디오 튜토리얼, 용어사전, 헬프 데스크, 유용한 링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ARIMS 검색 및 검색결과 화면



〈그림 4〉 ACRS의 하위 레코드 시리즈 상세정보

3.2 미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USAHEC)

3.2.1 기관 소개

미 육군에서 운영하는 또 하나의 아카이브즈인 미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U.S. Army Heritage & Education Center, 이하 USAHEC)[6]는 우리 육군의 육군 군사연구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하부 조직으로 육군 유산 박물관, 방문객 및 교육 서비스부, 육군 역사 연구소, 육군대학 도서관, 운영지원과를 갖추고 있다.

세부 조직별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육군 유산 박물관은 큐레이터, 전시, 컬렉션 관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 육군의 방대한 유산들을 획득, 보존, 전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객 및 교육 서비스부는 교육, 정보, 비영리 기금지원, 윤리, 복지, 레크리에이션 지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군 리더 개발 훈련, 방문객 서비스, 아웃리치, 자원봉사 및 인턴십 프로그램, 군 역사 강의 업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역사 서비스 부서는 역사 분야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주요 사령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고위급 지도자와 장교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역사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육군 역사 연구소는 아카이브, 비밀 보관소, 구술사, 디지털 관리 및 서비스, 시청각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군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획득, 보존, 처리함으로써 육군 소속인원과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육군 대학도서관은 목록 및 메타데이터 서비스, 연구 및 강의, 접근 서비스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군 대학 소속 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지원과는 인사, 예산, 운영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USAHEC의 조직들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미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USAHEC)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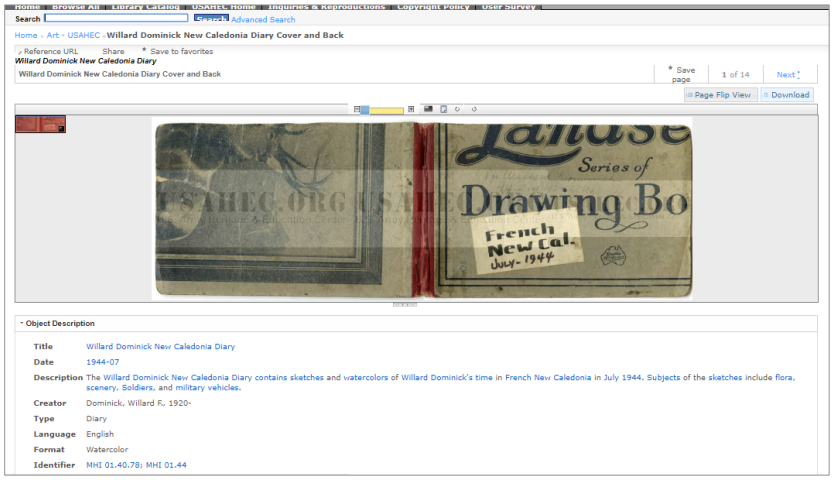
6) 미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 (2018). 검색일자: 2018. 5. 18. http://ahec.armywarcollege.edu

3.2.2 USAHEC 보유 기록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USAHEC는 현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육군 관련 사진기록, 행정박물, 군사 간행물과 매뉴얼, 참전용사 설문조사 및 부대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15세기부터 현재까지 생산 또는 수집된 1천 6백만 건 이상의 육군 역사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유물 및 보존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항목들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디지털 컬렉션은 50만권 이상의 도서와 전략적 리더십, 육군 및 육군 역사, 희귀도서, 육군 교리서, 훈련 및 행정 간행물, Nelson A. Miles, Tasker Howard Bliss, Matthew B. Ridgway, Eric Shinseki과 같은 미군 역사상 유명 인사들의 개인 문서와 주요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일기, 편지, 사진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USAHEC 이용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매뉴얼과 퀵가이드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접근 방법과 검색 지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 컬렉션 매뉴얼은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접근 방법과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 섹션에서는 기본 및 고급 검색 기능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 섹션에서는 검색도구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문헌과 참전용사 설문조사, 부대 역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USAHEC 디지털 컬렉션의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전체를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우는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화면의 형태 전환도 용이하다(〈그림 6〉 참조). 검색 방식에는 빠른 검색과 고급 검색의 두 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급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검색결과를 키워드 및 날짜별로 제한하여 특정 컬렉션을 선택



〈그림 6〉 USAHEC의 디지털 컬렉션 검색결과 화면

할 수 있다. 검색결과 페이지는 썸네일 외에 그리드(격자) 방식의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우스 포인터가 축소판 이미지 위에서 일시 중지될 때 확대된 이미지와 항목 정보를 표시하는 퀵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검색결과를 필터링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주제나 날짜, 기술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검색된 결과는 이미지 확대 및 축소 기능과 회전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색된 개체마다 상위 또는 관련 주제에 대한 하이퍼링크와 참조 URL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있다. 각 개체에 대해서는 제목과 생산일자, 생산자, 내용 설명, 연관 인물/조직/사건/이야기, 포맷, 저작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USAHEC의 디지털 컬렉션은 〈표 5〉와 같이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품은 육군 역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유물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행정박물은 부대와 퇴역 군인들이 남긴 인식표, 칼(집), 동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각 기록은 육군 영상국과 통신부대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사진, 미군 훈련 및 교리 영화, 군인과의 인터뷰(구술기록)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Carlisle Barracks의 역사는 Carlisle 인디언 산업학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메뉴스크립트는 미 육군에 복무한 개인들의 편지, 일기, 회고록과 공식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간행물은 육군이 발행한 교육훈련 회보나 회람을 포함하고 있다. Omar N. Bradley 컬렉션은 Bradley 장군이 기증한 방대한 메뉴스크립트와 사진을 모아 놓은 것으로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의 공식 문서, 연설문, 구술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술사는 미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장교들의 인터뷰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USAHEC 디지털 컬렉션은 남북전쟁, 제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사진 컬렉션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진 컬렉션은 미 육군 소속 통신부대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생산 및 수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긴박했던 전황뿐만 아니라 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담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표 5〉 USAHEC의 디지털 컬렉션 구성

컬렉션 유형	세부 내용
예술품	USAHEC 포스터, Willard Dominick New Caledonia 일기 등
행정박물	해당 박물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
시청각 기록	육군 관련 영화 및 사진, 퇴역 군인 인터뷰 등
Carlisle Barracks의 역사	Carlisle 인디언 학교를 포함한 Carlisle Barracks 관련 기록
메뉴스크립트	미 육군에 복무한 이들의 개별 기록
군 간행물	미 육군의 공식 명령, 교리, 지침, 규정, 훈련, 기술 매뉴얼 등
Omar N. Bradley 컬렉션	Omar N. Bradley가 기증한 기록
구술사	고급 지휘관 구술사 프로그램

또한 USAHEC 디지털 컬렉션은 연구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참조 문헌, 검색 도구, 참전용사 설문조사 목록 및 부대 역사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참조 문헌은 군사 간행물 및 시청각 기록의 주제별, 시기별, 부대별 자료 목록을 제공하며, 검색 도구는 개별 컬렉션에 포함된 아이템들의 세부 목록이다. 참전용사 설문조사 목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군 참전용사들이 기증한 사진, 행정박물, 정보자료들을 수집한 것이며, 부대 역사는 미군 부대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수록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3.3 미 육군 역사센터(CMH)

3.3.1 기관 소개

미 육군 역사센터(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이하 CMH)[7]는 우리 육군 박물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미국 본토를 비롯하여 세계 전역에 59개의 육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에게 육군의 역사와 관련한 사안들을 조언하고 평시와 전시 육군의 역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CMH는 군 역사 교육 및 육군 박물관 관리, 데이터 검색 시스템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육군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CMH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군의 교리발전 담당자 등 소속인원을 대상으로 부대 구조 및 역사자료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 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비롯해 美 육군이 참전한 전쟁 및 작전 관련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구술기록, 육군 역사 매거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생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미 육군 역사센터(CMH) 웹사이트

7) 미 육군 역사센터 (2018). 검색일자: 2018. 5. 18. https://history.army.mil

3.3.2 CMH 보유 기록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CMH는 전통적인 군 역사 관련 연구와 함께 평화유지 활동과 대테러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간행물을 편찬하고 있으며, 육군의 부대별 주요 역사자료를 보존하는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시대로부터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이 참전한 모든 전쟁 및 작전에 대한 구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만 건에 이르는 박물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관 및 참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들을 큐레이터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CMH 역시 미 육군 내 다른 아카이브즈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CMH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중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컬렉션은 총 22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군 부대의 활동상, 육군 지상군 연구, 육군 규정, 온라인 구술 역사, 남북전쟁 기념 브로셔, 비상 운영 시리즈, 세계 테러와의 전쟁, 한국전쟁 기념 브로셔, 이라크/베트남에서의 미군 캠페인, 냉전 시대의 미 육군, 제1·2차 세계대전 기념 브로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CMH는 〈그림 8〉과 같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육군에게 전사와 관련된 소중한 사료 및 연구자료 로서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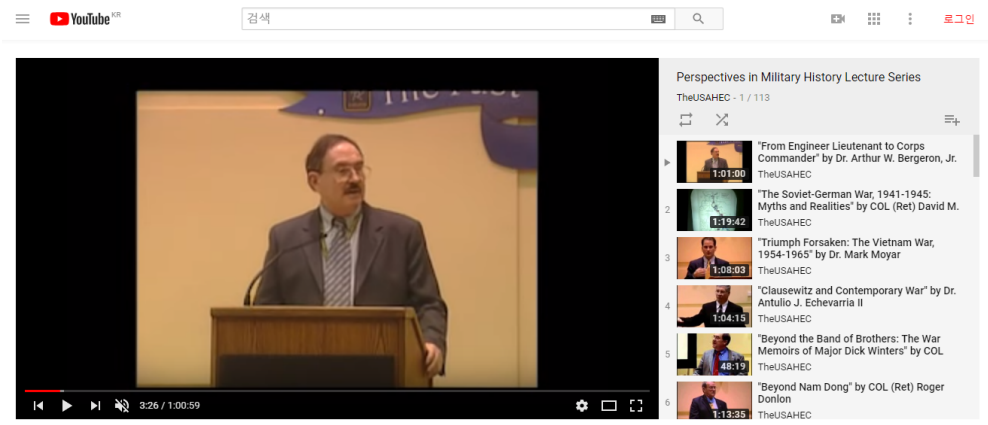
CMH가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역사자료들은 군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과 민간 연구자 등 이용자에게 미 육군이 수행한 주요 전쟁과 작전에 대해 상세한 해설과 역사적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안보의식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8〉 CMH의 한국전쟁 관련 연구논문 검색 결과

3.4 미 육군 아카이브즈 사례 분석

미 육군의 아카이브즈 사례에서 먼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주제와 유형이 단조롭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리 육군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대부분 개인 복무기록과 전쟁사 관련 전문서적 등 제한된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반면, 미 육군은 부대에서 생산한 공식 문서 및 개인 복무기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행정박물과 시청각 기록, 간행물, 구술사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3만 명이 넘는 참전 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산되는 구술기록의 생산은 전장에서의 기억을 포착, 재생하고 영구 보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매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및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육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유투브 채널을 통해 월간 및 분기 단위로 제공되는 군 역사 관련 강의 시리즈 역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교육 측면에서 공익적,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또한 미 육군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양질의 검색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이퍼링크와 공유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의 검색 및 접근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콘텐츠의 내용 면에서도 우리 육군의 경우처럼 단순한 이미지 파일의 제공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생산자, 생산일자, 연관 인물/사건/이야기 등 상세한 배경정보까지 총체적으로 망라함으로써 콘텐츠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이용자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이용할 경우 워터마크를 제외한 이미지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질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 목록과 컬렉션, 관련기관 링크 등을 제공한다.



〈그림 9〉 USAHEC의 유투브 온라인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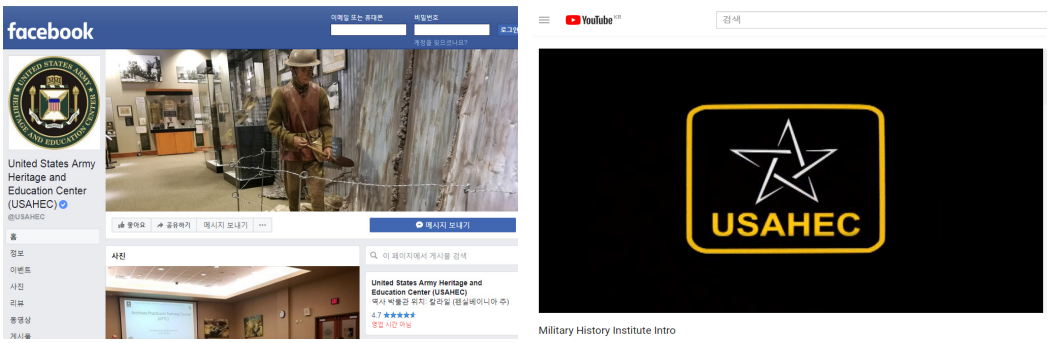
미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접근성과 개방성이다. 현재 USAHEC는 인터넷 웹사이트 외에도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 및 홍보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까지 마련한 것이다. 군 내부 전용 전산망(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폐쇄적이고 일방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육군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및 개방성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군 관련 강의 및 세미나, 워크샵, 방문객과의 만남 등의 이벤트를 월간, 분기별로 무료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군 아카이브즈에 대한 이용자의 흥미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림 10〉 참조).

이와 같이 미 육군은 각급 아카이브즈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적극 주도하고 있으며, 그 주제와 유형 면에서도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의 화해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낙관론으로부터 파생되는 안보불감증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이라는 공익적, 교육적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육군 아카이브즈의 보유 기록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콘텐츠의 유형이 개인기록이나 전문서적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그림 10〉 USAHEC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점이 식별되었고, 일부 콘텐츠의 경우에는 최신성도 결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품질 향상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조직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 역시 향후 내실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접근성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적인 인트라넷 환경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단순한 검색 기능의 제공 등 확장 서비스 측면에서 미흡함이 노정되어 있음을 식별하였다.

우방국이자 기록관리 선진국인 미 육군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들의 검색 및 교육,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은 물론 인터넷 기반의 개방적인 환경과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운영 등 우리 육군이 차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콘텐츠의 주제와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개인 복무기록과 전쟁사 관련 전문서적 위주의 편향성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단순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유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USAHEC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독립전쟁과 6.25 전쟁, 베트남전을 비롯한 해외파병까지 우리 육군이 그동안 참전하여 생산, 수집한 기록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인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공익적, 교육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6.25 전쟁 시의 백마고지 전투와 육탄 3용사와 같은 주요 전투와 호국 인물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고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 참전했던 16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새롭게 조명하는 콘텐츠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며,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아프리카나 중동 등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우리 군의 활약상을 담은 콘텐츠 등을 통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군아카이브즈 내에 온라인 콘텐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디지털 큐레이터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여건상 전담조직의 편성이 당장 힘들다면 우선 기록정보관리단의 기록보존활용과에 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육군 소속 인력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킴으로써 자체 양성하는 방안과 외부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조직적 인프라가 갖추어 졌을 때 비로소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육군이 소장한 방대한 자료 중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 정제, 가공하여 양질의 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육군 아카이브즈 간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육군 아카이브즈는 각 기관 고유의 일차적인 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간의 교류 협력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기록정보관리단의 경우, 주로 기록의 수집과 보존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육군 군사연구소는 전쟁사 편찬 업무를, 육군 박물관은 유물의 전시,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관 기관 사이에 긴밀한 업무 협조와 공동 연구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해군과 공군에서 운영하는 역사기록관리단 등 타군과의 협업 그리고 국방부 유해발굴사업단, 전쟁기념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와 같은 국가안보 및 보훈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 추진 등 적극적인 공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일반 국민들을 비롯한 이용자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콘텐츠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 육군 아카이브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단순한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형식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색기능도 단순 키워드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용자의 정보 검색 및 접근의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USAHEC의 고급 검색기능과 퀵뷰, 썸내일 및 그리드 방식의 검색 화면, 하이퍼링크와 같은 양질의 부가서비스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을 토대로 육군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 육군은 「대한민국 육군 밴드」를 개설하여 육군의 각종 정책 및 행사, 미담사례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 기록 온라인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실시간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강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각 아카이브즈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USAHEC의 사례와 같이 한 데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가칭 국방 기록유산 센터)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과 국가관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우리 군의 관련 법제 정비와 실질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명훈, 한지혜 (2013).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수립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6, 153-193.

김솔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김유승, 설문원 (2013).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5-48.

김지현 (2012).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67-187.

설문원, 김익한 (2006). 이승만 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반한 역사 컨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15-136.

심성보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1-256.

육군본부 (2017). 기록물관리 및 인쇄규정.

이윤주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 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147-200.

전수진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27-152.

정하영, 김양우 (2009). 시청각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9-86.

최상희 (2016). 가톨릭 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321-342.

[웹사이트]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8. 5. 16. 사이트 주소 보안상 생략

육군 박물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8. 5. 17. http://www.kma.ac.kr/

육군 역사연구소.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8. 5. 16. 사이트 주소 보안상 생략

CMH(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Retrived May 18, 2018, from https://history.army.mil/

RMDA(Records Management & Declassificaion Agency). Retrived May 17, 2018, from https://www.rmda.army.mil/

USAHEC(U.S. Army Heritage & Education Center). Retrived May 17, 2018, from http://ahec.armywarcollege.edu/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Sanghee (2016). A Study on Online Services of Catholic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4), 321-342.

Jeon, Soo-Jin (2008). Analysis on Online Contents Services of Nation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127-152.

Jung, Ha-Young & Kim, Yang-woo (2009). A study on Online Contents of Multi-media Records. Conference symposium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79-86.

Kim, Jihyun (2012). A Study on Users' Perception of Reference Service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1), 167-187.

Kim, Myoung-Hun & Han, Ji-Hye (2013).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153-193.

Kim, Sol (2013). Application of Online Content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Elemen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59-79.

Kim, You-Seung & Seol, Moon-Won (2013). A Study on Online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s Archiv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25-48.

Lee, Yoon-Ju (2007). A Study on the Evaluating Standards On-Line Service for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147-200.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2017). Regulations for Records Management and Printing.

Seol, Moon-Won & Kim, Ik-Han (2006).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tents Based on Relational Structure of Minutes of State Council and Records of Ministries in the Period of Rhee Regim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115-136.

Shim, Sungbo (2007).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201-256.